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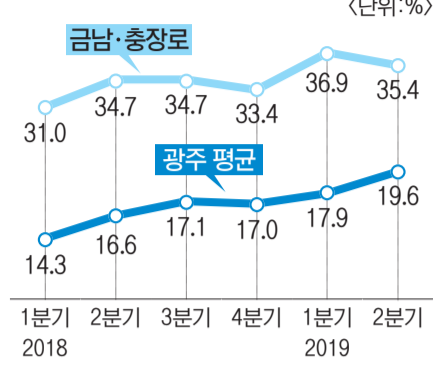
총장로·금남로 오피스 3곳 중 1곳 비었다

경기 부진·소비 위축 탓 공실률 35%...전남 공실률 26.8%
광주 평균 공실률 19.6%에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국 최고

광주지역 6층 이상 빌딩 사무실 5곳 중 1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대표 상권인 동구 총장로와 금남로 빌딩은 35%가 공실로, 경기 부진·소비 위축에 따른 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무지구 중심지로 한 오피스텔 수익률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6층 이상) 공실률은 평균 19.6%, 중대형 상가(3층 이상) 12.5%, 소규모 상가(2층 이하) 3.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7%포인트, 1.5%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오피스는 7.6%포인트, 중대형은 1%포인트 공실률이 높다. 특히, 광주의 대표 상권인 동구 금남로·총장로 일대 오피스 공실률은 35.4%에 달했다. 사무실 3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다는 의미다. 이 곳의 공실률은 지난 2017년 3분기 25.6%에서 지난해 1분기 31.0%, 2·3분기 34.7%, 4분기 33.4%, 올해 1분기 36.9%

로 2년 사이에 9.8%포인트 급증했다. 여파는 신도심인 서구 상무지구까지 미치고 있다. 상무지구 오피스 공실률은 2분기 10.3%로, 전 분기보다 4.6%포인트 늘리며 두자릿 수에 진입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상무지구가 18.5%로, 전 분기보다 3.9%포인트 늘어가 가장 심각했다. 전남대(16.3%), 금남·총장로(15.2%)로 경기 부진에 따른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호지구(3.6%), 양산지구(4.0%)는 빈 상가가 드물었다. 소규모 상가는 첨단1지구(6.9%), 전남대(6.6%) 상권에 빈 상가가 많았다. 전남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26.8%로, 광주보다 더 심각했다. 중대형 상가는 14.1%, 소규모 상가는 6.2%의 공실률을 보였다. 전 분기보다 중대형은 0.3%포인트, 소규모 상가는 0.1%포인트 늘었다. 중대형 상가는 광양읍 공실률이 29.4%로 가장 심각했고, 순천(23.2%), 목포(19.1%), 순천변원(16.2%) 상권의 공실률은 전남 평균을 웃돌았다. 소규모 상가 공실

■ 분기별 광주 오피스 공실률 (단위: %)



률은 여수여문 18.6%(전 분기 대비 4.9%p ↑), 목포 14.4%(3.6%p ↓), 순천 13.1%(3.6%), 양산지구(4.0%)는 빈 상가가 드물었다. 광주지역 상가 임대료는 집합상가가 ㎡당 2만41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대형 상가 2만3000원, 소규모 상가 1만6200원, 오피스 57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분기 대비 집합상가와 소규모 상가는 ㎡당 100원씩 올랐고, 중대형 상가는 100원 하락했다. 오피스는 임대료 변화가 없었다. 전남지역은 집합상가 임대료가 1만 6700원, 중대형 1만1500원, 소규모 9800원, 오피스 4700원이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제조업 등 지역산업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공실이 늘고 임대료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높았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4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광주가 8.38%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7.1%), 대구(6.51%), 인천(6.51%), 부산(6.27%), 울산(6.16%)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기(5.33%), 서울(4.87%), 세종(4.37%)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겠지만, 입지와 조건에 따라 오피스텔도 매물 간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4호점 선정식

화정동 나우리지역아동센터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최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나우리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54호점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김경태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지역 아동 40명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 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나우리지역아동센터 내 신발장과 수납장을 새로 설치하고, 책걸

상과 오래된 장판을 교체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직원들은 아동들과 함께 새롭게 꾸민 공부방을 둘러보고 간식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은행 김경태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이 새롭게 꾸민 공부방에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원 찾아가

서민금융진흥원(진흥원)은 올해 상반기에 휴면예금 15만5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26% 늘었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원래 권리는 온·오프라인 장구로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OSB·안양·웰컴·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Indian Overseas Bank) 등 5개사와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출연사가 총 105개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전은 최근 KSR인증원으로부터 국제 표준인 ISO 22301 인증서를 취득했다. 한전 관계자들이 인증서 수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 재해 위기관리체계 정립 국제 표준 인증 취득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의 전사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KSR인증원으로부터 국제 표준인 ISO 22301 인증서를 취득했다. 업무연속성관리(BCM)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 내는 총체적인 경영활동이다. 한전은 2017년 본사 및 광주전남 본부를 시작으로 2년 만에 전사 확대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ISO 22301 인증은 재해재난 사고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사전 준비된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전력공급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가 정립돼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전 이호평 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 전사 확대구축 및 인증은 한전의 위기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이호평 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 전사 확대구축 및 인증은 한전의 위기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중기 8월 경기전망 '장마구름'

광주 3개월·전남 4개월 연속 ↓
지난 2월 이후 최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수출규제 전쟁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체감경기가 울झे 가장 어려운 수준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는 3개월 연속, 전남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8월 경기전망조사' 결과, 지역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보다 6.8포인트 하락한 76.8로 나타났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업황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고, 100 이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9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86.2)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81.5이고, 전남은 전월(78.9)보다 10.6포인트 급락한 68.3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2월(68.3) 이후 1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83.9) 대비

6.9포인트 상승한 77.0, 비제조업은 6.7포인트 하락한 76.6이었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81.1→73.2), 수출전망(75.0→73.2), 경상이익전망(74.2→69.4), 자금 사정 전망(72.7→68.9)로 모두 하락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8월 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74.2%)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54.0%), 업체 간 과당경쟁(48.5%), 자금조달 곤란(30.3%), 계절적 비수기(27.8%) 등도 경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6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6 20 27 37 39	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22,582,588	10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57,219,720	56
3 5개 숫자일치	1,449,912	2,210
4 4개 숫자일치	50,000	108,562
5 3개 숫자일치	5,000	1,814,332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장 속속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욕기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